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1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9.23~2026.09.29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공항(갈등), 추석(연휴), 인공지능(민주주의), 공공기관(유치), 복지(돌봄)
경제·관광	소비(외국인), 관광객(연휴), 일본(현지), 여행(농촌), 성장(로컬기업)
지역·사회	추석(명절), 교원(보호), 예방(위험), 범죄(불법), 학생(미래)

※ 분석 기간 : 26.09.23.~26.09.29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공항(갈등)	- 국토부 장관 "제2공항 도민 의견 적극 수용"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역할 축소 - 3003억 공항 인프라 실효성 검증 요구
	추석(연휴)	-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물가·치안·제2공항 -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1049명 비상근무 - 제주시 기간제 추석 격려물품 제외...시장 사과
	인공지능 (민주주의)	- 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조례 발의 - 공직자 AI 역량 강화 'AI해봄마루' 개소 - "제주, 글로벌 AI 허브 입지 충족"
	공공기관(유치)	- 김한규 의원, 총리에 공공기관 제주 이전 요청 - 도-공공기관 책임혁신회의 출범·출연금 증액 추진 - 공공기관장, 제주공항서 G20 유치 합동 홍보
	복지(돌봄)	- 빅데이터·실태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 2055년 도민 절반이 노인...통합돌봄 연결 강조 - 중위소득 6.7% 인상...기초생활급여 두텁게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소비(외국인)	- 상반기 관광소비 1조3141억...외국인 급증 - 외국인 소비, 중화권 최다·신제주 집중 - 소비자심리 석 달 만에 반등...금리 압박은 심화
	관광객(연휴)	- 추석 연휴 입도객 16만9425명...예상 밀돌아 - 일본인 줄고 대만인 급증...관광객 지형도 변화 - 우도 좁젠·불법드론 예방 등 관광질서 캠페인
	일본(현지)	- 일본시장 공략...도쿄 직항 주5회로 증편 - 日 최대 관광박람회서 현지 여행사와 상품 개발 - 제주 스타트업 5개사, 도쿄 로드쇼서 투자 조율
	여행(농촌)	- 서귀포 농촌마을 가을여행 4종 최대 30% 할인 - 제주올레 '할망스테이' 4곳 오픈...시즌2 시동 - 해녀스테이 이용객 2800명...체류형 관광 확대
	성장(로컬기업)	- 200억 로컬기업 성장펀드 본격 운용 - 2분기 지역내총생산 0.0%...성장 제자리걸음 - '창업도시 제주' 타운홀미팅...현장 제안 수렴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추석(명절)	- 벌초 대행·차례 간소화...달라진 추석 풍속도 - 추석 특별치안활동...교통사고 절반·보이스피싱 0건 - 천지연 추락사·강풍 피해 등 연휴 사건사고
	교원(보호)	-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교사 보호·지원 촉구 - '우리학교 변호사' 25명 위촉...한계 지적도 - 교육활동 침해 대응 '통합 지원체계' 가동
	예방(위험)	- 내년 재해예방사업 433억...신규 3곳 반영 - 공장·창고 1235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 고령층 낙상 주의보·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범죄(불법)	- 추석 연휴 관계성 범죄 신고 48.7% 급증 - 5대 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안전지수 점검 - '채굴방' 게임장 적발·관광객 감금 일당 구속
	학생(미래)	- KAIST 캠프·한국MS 협약...미래인재 육성 - 신제주초 수영부 창단·성산초 대만 공동수업 - 스스로 답 찾게 돕는 AI 학습기술 특허 출원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9월 23일~9월 29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602건임
 - 정치·행정 분야 211건, 경제·관광 113건, 지역·사회 27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공항(갈등), 추석(연휴), 인공지능(민주주의), 공공기관(유치), 복지(돌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공항 (갈등)	- 국토부 장관 "제2공항 도민 의견 적극 수용" · 홍시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제2공항 사업 추진에는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판단을 도민에게 맡긴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도 수용 입장을 밝히며 도민결정권에 힘이 실렸고, 진보당 제주도당은 주민투표가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며
-------	------------	---

	공항 (갈등)	실시를 촉구함.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역할 축소 · 제주도가 공공갈등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에 환경부 예규상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기능까지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협약위원회가 운영계획안 심의를 보류하고 찬성단체도 불참 의사를 밝혀 구성부터 난항을 겪음. · 위성곤 지사는 추석 연휴 방송 대담에서 협의회가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주민투표·공론조사·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정하는 '룰'을 만드는 기구라고 설명했으며, 도 관계 부서도 협의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하며 한발 물러섬. - 3003억 공항 인프라 실효성 검증 요구 · 문대림 국회의원은 23일 민생경청회에서 3003억원이 투입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시간당 슬롯이 35회로 묶여 있고 제주지방항공청 관제과 현원이 정원보다 7명 부족하다며 사후 영향평가 부재를 지적하고 예결위 질의를 예고함. · 관광업계는 올해 하계 스케줄 이후 9월 초까지 제주노선 공급 좌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만9000석 줄었다며 운항편수 회복과 항공기 대형화를 요구했고, 항공사 통합으로 독점 구조가 굳어지면 대형기 투입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정치·행정	추석 (연휴)	-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물가·치안·제2공항 · 고물가 속에 차례상을 최대한 간소하게 차려도 20만원 넘게 들었다는 한숨이 나왔고 비싼 항공권과 좌석 부족으로 귀성을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온라인에 퍼진 치안 괴담을 도민들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림. · 경기침체 속 공공기관 제주 유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정부의 제주 홀대론도 제기됐으며, 위성곤 도정 첫 추석을 맞아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칭다오 항로 등 민생 행보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옴. -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1049명 비상근무 · 제주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민물가 안정·생계안정·관광 활성화·24시간 안전관리·도민불편 최소화 등 5개 분야의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도와 행정시 1049명이 종합상황실 중심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함. · 위성곤 지사는 23일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소방서, 도립노인요양원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했고, 연휴 첫날에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살핀 뒤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함. - 제주시 기간제 추석 격려물품 제외…시장 사과 ·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인당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하면서 후생복지기금 고갈 등을 이유로 수도 검침원·청소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1967명을 제외했으며,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기간제에게도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남.

정치·행정	추석 (연휴)	· 이상봉 제주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챙기지 못한 것은 오롯이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며 공식 사과하고, 미지급 건을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복지혜택 기획 단계부터 차별 요소를 검증하겠다고 약속함.
	인공지능 (민주주의)	- 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조례 발의 · 한권 도의원은 도와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정책 결정에 쓰는 AI를 '공공인공지능'으로 정의해 활용 사실과 역할·한계를 공개하고, 도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설명과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 · 조례안은 5년 단위 인공지능 민주주의 기본계획과 최대 20명의 위원회,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담았으며, 17명의 의원이 참여해 10월 2일부터 열리는 제4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내년 시행되는 공공분야 영향평가와도 연계됨. - 공직자 AI 역량 강화 'AI해봄마루' 개소 · 제주도는 22일부터 도청 제2청사 1층에 공직자 AI 업무활용을 지원하는 상시 교육·상담 공간 'AI해봄마루'를 운영하며, 상주강사의 대면·메신저 상담과 생성형 AI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보고서·법령 검토 등 실무 과정을 확대할 계획임. · 28일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서는 개인 업무 활용부터 부서 멘토링, 조직 코칭까지 역량을 키우는 3단계 인증체계의 'AI파트너 운영계획'이 보고됐고, 위성곤 지사는 AI 활용이 도정이 선택한 업무혁신 방향이라며 행정시·공공기관 확산을 주문함. - "제주, 글로벌 AI 허브 입지 충족" · 제주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에서 정부가 UN 산하 9개 국제기구·5개 다자개발은행과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가 국제협력 기능 중심이라며, 16년간 개발도상국 연수를 운영해 지난해 150여개국 7049명이 연수를 받은 CIFAL Jeju를 강점으로 제시함. · 허브 용역 전담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가 서귀포시에 있어 UN 기구와 정부 경로가 한 지역에 놓인 점도 부각됐으며, 연구진은 AI 연수과정 신설과 국제기구 실사 대비 기초자료 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유치를 건의함.
	공공기관 (유치)	- 김한규 의원, 총리에 공공기관 제주 이전 요청 · 김한규 국회의원은 23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 산업과 밀접하고 상주 인력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1차 이전 당시 이전 인원이 적었고 재외동포재단이 인천으로 역이전한 점을 강조함. · 김 의원은 문대림·김성범 의원과 함께하는 별도 면담을 요청해 총리가 응하겠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도는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 등 6개 핵심 유치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유치 논리를 다듬고 있음.

정치·행정	공공기관 (유치)	- 도-공공기관 책임혁신회의 출범·출연금 증액 추진 · 제주도는 23일 17개 지방공공기관장이 참여한 제1차 제주 공공기관 책임혁신회의를 열어 격월 정례화와 매월 실무회의 운영을 정하고, 삼다수공장 단계적 재생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등 기관별 혁신과제를 공유함. · 도는 12개 출자·출연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했으며, 총 규모가 약 883억원에서 1470억원 상당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테크노파크가 99.5% 증가한 432억1230만원으로 증액 규모와 비율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장, 제주공항서 G20 유치 합동 홍보 · 위성곤 지사와 17개 공공기관장은 23일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추석 입도객 환영행사와 연계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합동 홍보를 벌이며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숙박 기반 등 강점을 알림. · 도는 지난 16일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개최지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를 유치 논리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와 행정시·유관기관 홍보 수단을 활용해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임.
	복지 (돌봄)	- 빅데이터·실태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 서귀포시는 단전·단수, 4대 보험 체납 등 47종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통보된 2921명을 조사해 259명에게 긴급지원·기초수급 등 공적 급여를 연계하고 2248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함. · 제주시는 11월 6일까지 26개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추출 대상자와 거주불명자 등 2443명을 대상으로 고독·고립 위험군 실태조사를 벌이며, 상반기에는 1298명의 위험군을 찾아 145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함. - 2055년 도민 절반이 노인...통합돌봄 연결 강조 · 제2회 제주고령사회포럼에서 제주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13만4263명에서 2055년 33만4442명으로 늘어 고령화율이 5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읍면동별 고령화율도 12.0~42.3%로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노인 1만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전국 평균의 69%, 노인복지관은 36% 수준에 그쳐 재가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반면 제주가치돌봄 누적 이용자는 2만535명에 달해, 서비스 확대보다 의료·요양·주거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체계 구축이 제언됨. - 중위소득 6.7% 인상...기초생활급여 두텁게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역대 최대인 6.7% 오르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됨. · 생계가 급박한 위기가구에는 공적지원 결정 전 읍면동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원을 먼저 지급하며, 도내 수급자는 8월 말 2만9972가구·4만29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해 결산에서도 사회복지 세출이 2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경제·관광	소비(외국인)	- 소비자심리 석 달 만에 반등...금리 압박은 심화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9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0.9로 전월보다 3.1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으며, 가계수입전망지수가 5포인트, 소비지출전망지수가 4포인트 오르는 등 가계 재정 인식이 개선됨. · 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8로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아 추가 금리 인상 예상이 커졌고 물가수준전망지수도 142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제주 지수는 전국 106.6보다 5.7포인트 낮아 심리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됨.
	관광객(연휴)	- 추석 연휴 입도객 16만9425명...예상 밀돌아 ·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6만9425명으로 잠정 집계돼 당초 예상한 18만7000명보다 9.4% 적었으며, 마지막 날을 포함해도 약 21만1000명으로 사전 전망치 22만9000명에 못 미칠 전망이다. · 사전 전망에서는 내국인이 19만1900명으로 9.7% 줄고 외국인은 3만7100명으로 36.7% 늘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로 이어진 긴 연휴와 달리 올해 연휴가 나흘에 그쳐 짧아진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일본인 줄고 대만인 급증...관광객 지형도 변화 ·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 18만7790명에서 2023년 5만3482명까지 줄었으며, 2012년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엔저와 일본인 해외여행 감소가 겹치면서 직항 노선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그 사이 무사증을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25년 158만명으로 늘었고 대만인 관광객은 2019년 처음 일본을 넘어선 뒤 지난해 23만359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K-컬처와 가성비를 앞세운 중화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 - 우도 좁젠·불법드론 예방 등 관광질서 캠페인 ·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는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우도 검멀레해변 일대에서 올해 네 번째 친환경 프로젝트 '좁젠'을 열어 도민·관광객과 비치클린을 진행하고, 성산항과 우도 일대에서 관광질서와 안전수칙 준수를 안내함.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입도객 증가에 대비해 입국장과 렌터카하우스 등 여객터미널 내외 36곳에 제주어로 만든 불법드론 안내 현수막을 확충했으며, 지난해 공항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으로 미승인 비행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일본(현지)	- 일본시장 공략...도쿄 직항 주5회로 증편 · 제주 방문 외국인 가운데 일본인 비중은 2019년 5.1%에서 2025년 3.7%로 낮아졌으나, 올해는 7월까지 5만7800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늘면서 비중도 3.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제주~오사카·후쿠오카 노선이 매일 1회 운항하는 가운데 제주~도쿄(나리타) 노선이 10월 말부터 주 4회에서 주 5회로 증편되며, 제주관광공사는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와 동계시즌 증편에 맞춘 공동 마케팅 방안을 모색함. - 日 최대 관광박람회서 현지 여행사와 상품 개발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4~27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6'에 도내 관광기업 3곳과 참가해 HIS·한큐교통사·요미우리여행 등 현지 여행사·OTA와 개별여행객 현지 투어, 프리미엄·크루즈 상품 개발을 논의함.

경제·관광	일본 (현지)	· 도내 관광기업 3곳은 현지 여행사와 미디어 등을 상대로 약 3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홍보부스에서는 AI 제주 포토부스와 향기 체험 등을 선보였으며 방문객 설문에서 미식 콘텐츠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관련 테마상품을 확대할 계획임. - 제주 스타트업 5개사, 도쿄 로드쇼서 투자 조율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6~18일 일본 도쿄에서 '2026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쿄 로드쇼'를 진행했으며, 국내 스타트업 14개 팀 가운데 알페스·바이오스페로·새로핀·피터페터·네모즈랩 등 제주 기술·콘텐츠 기업 5개사가 참가함. · 비즈니스 밋업에는 H.I.S.와 간사이국제공항 등 일본 대·중견기업 15개 기관이 참여해 기업당 2회 이상 1대 1 전문가 매칭이 이뤄졌고, 참가기업들은 공동 실증과 유통·마케팅 협업, 투자 검토 방안을 논의한 뒤 데모데이에서 IR 피칭을 진행함.
	여행 (농촌)	- 서귀포 농촌마을 가을여행 4종 최대 30% 할인 ·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는 추석과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2026 농촌크리에이티브 '촌(村)스러운 촌(村)플레이' 2차 기획전을 지난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마을과 여행사가 함께 개발한 신규 로컬 체험상품을 선보임. · 신규 상품은 머체왓숲 원데이 산림치유, 하례 망쟁이바다 바룻잡이 놀이, 하례마을 일상 탐방, 다정한 동백 생활 등 4종으로 최대 30% 할인되며, 여행객이 서귀포의 숲과 바다, 농촌 마을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됨. - 제주올레 '할망스테이' 4곳 오픈…시즌2 시동 ·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펀드를 통해 제주 시니어 여성의 민박 창업을 지원하는 '할망숙소 시즌2-할망스테이'를 열고, 2009년 시작된 할망숙소를 마을과 사람, 체험을 잇는 로컬 체험형 숙소로 확장함. · 남읍 두모악, 귀덕온담, 애월당굴-불턱올레, 행원 순자할망민박 등 4곳에서 해녀 할망의 이야기와 마을 일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10월 9일까지 모집하는 숙박 체험단에는 최대 2박 범위에서 1박 숙박비의 50%를 지원함. - 해녀스테이 이용객 2800명…체류형 관광 확대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포럼에서 도내 등록 해녀가 2025년 2371명으로 등재 당시 4005명보다 41% 감소하고 70세 이상이 63%를 넘는 등 전승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해녀와 관광의 공존 방안이 논의됨. · 관광공사가 세화에서 시작해 김녕·금능으로 넓힌 해녀스테이는 이용객 2800명을 넘기고 어업 외 소득 약 1억7000만원을 올렸으며, 10~11월에는 법환마을이 합류한 해녀문화주간 '바닷말싸미'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임.
	성장(로컬기업)	- 200억 로컬기업 성장펀드 본격 운용 · 제주도는 도 출자금 10억원에 농림수산물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더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로컬기업 성장펀드 운용사로 비엔케이벤처투자를 선정했으며, 도 출자액의 두 배인 20억원 이상을 로컬기업 5곳 이상에 의무 투자하게 됨. · 펀드는 지분 투자와 함께 신제품 양산이나 수출 계약물량 생산 등 개별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프로젝트 투자를 병행하며, 도는 기업 발굴부터 성장·판로 지원, 투자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갖춰 지역 대표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임.

경제·관광	성장(로 컬기업)	- 2분기 지역내총생산 0.0%...성장 제자리걸음 · 국가데이터처의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0.0% 성장에 그쳐 1분기 1.8%에서 다시 둔화했으며, 전국 평균이 3.7% 성장하고 충북이 11.9%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부진한 흐름을 보임. · 산업별로는 비금속광물과 전자부품 생산이 줄며 광업·제조업이 3.3%, 건설업이 3.2%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문화, 도소매 등이 늘어 0.7% 증가했으나 정보통신업은 20.1% 줄어드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부진이 확인됨. - '창업도시 제주' 타운홀미팅...현장 제안 수렴 · 제주도는 29일 창업지원기관과 창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창업도시 제주 실현, 타운홀미팅'을 열고, 사전 접수한 142건의 정책 제안을 초기 창업·기업 성장·해외시장 진출 등 성장단계별 3개 분야로 분석해 공유함. · 위성곤 지사는 도가 제주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첫 고객 역할과 원스톱 창업 지원센터 마련을 약속했으며, 도는 수렴한 의견을 4년간 6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조성 공모 제안서와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추석(명절), 교원(보호), 예방(위험), 범죄(불법), 학생(미래)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	추석 (명절)	- 벌초 대행·차례 간소화…달라진 추석 풍속도 · 1인가구 증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친척들이 모이던 모듬벌초와 명절이 옛말이 되면서 벌초를 대행에 맡기거나 차례를 큰집에서 한 번만 지내는 등 간소화가 확산됐고, 부모가 자녀가 사는 곳으로 가는 역귀성과 가족여행도 대세로 자리잡음. · 제주 인구는 1996년 50만명에서 8월 말 66만2681명으로 늘었으나 세대당 인구는 2.09명에 그치고 고령인구가 13만7900명으로 20.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랜 명절 풍습의 계승을 위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이 강조됨. - 추석 특별치안활동…교통사고 절반·보이스피싱 0건 · 제주경찰청은 17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대형 사건·사고 없이 치안을 유지했으며, 연휴 기간 5대 범죄는 전년보다 21.4% 줄었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9.6건에서 4.8건으로 절반 감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경찰은 음주운전 39명과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262건을 단속하고 실종 신고 94건을 모두 발견·종결했으며, 민생침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결과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천지연 추락사·강풍 피해 등 연휴 사건사고 · 26일 밤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사진을 찍던 50대 관광객이 물속으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 날 상례동 삼거리에서 중국 국적 20대 여성 보행자가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며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전사고도 잇따름. · 연휴 사흘째인 26일에는 강풍·호우특보 속에 건입동과 우도에서 전신주가 쓰러져 정전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으며, 한라산 남벽에 118mm의 비가 내리는 등 산지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성묘길 주의가 요구됨.
	교원 (보호)	-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교사 보호·지원 촉구 ·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교사노조는 가해자 엄벌과 피해교사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피해교사들이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지원 공백을 지적함. · 제주교총은 교원보호공제 변호사비가 '피해교사 합계 330만원'이 아닌 교원 1인당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해교사는 29일 인터뷰에서 재학생 피해 확인이 미흡했다고 호소했고 도교육청은 초기 지원이 충분히 체감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함. - '우리학교 변호사' 25명 위촉…한계 지적도 ·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을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해 1년간 기간제·휴직 교원을 포함한 도내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직무 관련 형사·민사 사안 등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함. · 다만 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라 사건을 직접 수임하거나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 없어 별도 선임이 필요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불법촬영

지역·사회	교원 (보호)	영·딥페이크 피해 교원 지원이 상담 중심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육활동 침해 대응 '통합 지원체계' 가동 · 도교육청은 29일 안심콜센터 신고부터 장학사 현장 지원, 피해교원 심리상담과 진료비 지원, 법률 지원, 관계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가 사안 처리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 · 교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 사건에는 1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폭력 사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내년 1월 1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출범할 예정임.
	예방 (위험)	- 내년 재해예방사업 433억...신규 3곳 반영 · 내년 제주 재해예방사업 예산 433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올해 334억원보다 99억원 늘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22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임. · 신규 사업으로 침수 피해가 잦은 성산읍 수산1리와 조천읍 와산리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서귀포시 천자연로 급경사지를 정비하며,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되고 도는 2028년 신규사업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나섬. - 공장·창고 1235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공장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235동을 대상으로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피난·소방시설 설치·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21만7000동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초고위험사업장 42동을 올 하반기에, 고위험사업장 558동과 나머지 635동을 2027년에 차례로 점검하며,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으로 즉시 조치할 방침임. - 고령층 낙상 주의보·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낙상사고 환자는 1만4168명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해 3099명에 달했고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해, 29일 가을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을 지원함. · 제주경찰청은 29일 제주은행과 함께 제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어르신 2000여명을 대상으로 카드배송·자녀사칭, 대출빙자 등 주요 피싱사기 유형과 예방수칙,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임.
	범죄 (불법)	- 추석 연휴 관계성 범죄 신고 48.7% 급증 ·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31.6건보다 48.7% 늘어, 전체 112신고가 5.6% 줄어든 흐름과 달리 가까운 관계에서의 범죄 신고가 크게 증가함. · 경찰은 연휴 기간 관계성 범죄 고위험 대상자를 사전 점검·모니터링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사건 초기 위험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관서장이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예방활동을 이어갈 방침임. - 5대 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안전지수 점검 · 제주도는 29일 박천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3분기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상황

지역·사회	범죄 (불법)	보고회를 열었으며, 최근 5년간 5대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구급건수는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8월 말 기준 자율방범대원은 1643명으로 22.9% 늘었고 응급처치교육 이수자와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도 각각 31.2%, 14.4% 증가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35곳에서 259곳으로 확대돼 보고회에서는 60개 과제의 보완 방안이 논의됨. - '채굴방' 게임장 적발·관광객 감금 일당 구속 ·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성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에 1만원을 받으며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한 무등록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51대와 현금 약 380만원을 압수하고 업주를 입건함. · 또 21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펜션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감금하고 10만위안을 이체하게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했으며, 신고 전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2명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음.
	학생 (미래)	- KAIST 캠프·한국MS 협약...미래인재 육성 · 제주 학생 15명은 19일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열린 교육청 위탁 사이버영재 교육 오프라인 교육에 전국 우수 참여학생 242명과 함께 참여해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센터장 강연과 캠퍼스 투어를 통해 이공계 진로를 탐색함. · 도교육청은 2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AI 기반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참여형 AI 수업과 교원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2027년 3월 개교하는 제주미래고에서 우선 추진한 뒤 도내 학교로 확대할 계획임. - 신제주초 수영부 창단·성산초 대만 공동수업 · 신제주초등학교는 22일 학생선수 18명으로 구성된 수영부 창단식을 열었으며, 교내 수영장을 활용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수영을 해오던 학생들이 이동 부담 없이 정기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생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성산초등학교는 23일 교육국제화특구 세계동행학교 사업의 하나로 5학년 학생들이 대만 학생들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과 작품을 소개하는 2학기 첫 온라인 국제 공동수업을 운영했으며, 향후 대면 국제 교류로 확장할 계획임. - 스스로 답 찾게 돕는 AI 학습기술 특허 출원 · 서귀포시에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강수연 원장은 생성형 AI가 학생 이해 수준에 따라 질문의 난이도와 범위를 조절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인지 위계좌표 기반 적응형 스캐폴딩 독해 추론 학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함. · 이 기술은 AI 학습도구가 정답을 곧바로 제공해 학생의 추론 과정이 줄어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학생이 어려워하면 쉬운 질문으로 돌아가고 이해하면 한 단계 높은 질문으로 넘어가며 막히는 지점을 기록해 파악하는 방식임.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